

『연약함이 하나 됨의 통로가 될 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63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개인의 경건이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일 관계에만 국한하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하며, 우리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지체로 부르셨음을 강조합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온몸이 그 고통을 느끼며 신경을 곤두세우듯, 신앙 공동체는 타인의 삶이 나의 삶으로 깊숙이 연결되는 신비로운 생명의 장소여야 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의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그저 제삼자의 시선이나 구경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함께 아파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을 감추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얻습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또한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의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맛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이나 성취를 보며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인간적인 본성을 넘어, 진심으로 손을 맞잡고 축하해 주는 모습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룩한 성숙의 증거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나의 유익처럼 기뻐하며 응원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곁에 있는 지체의 작은 신음과 말간 웃음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수고로 세워지는 집』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59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나 홀로 거룩해져서 높은 정상에 오르는 독아청청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뒤쳐진 이의 거친 숨소리를 살피고, 넘어진 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함께 평지를 걷는 사랑의 동행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그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각 마디를 통한 도움'과 '사랑 안에서'의 세움'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고유한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불필요하거나 소외되어도 괜찮은 존재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은 모양이 저마다 다를지라도,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비로소 공동체라는 전체의 몸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더불어 사랑만이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조직의 효율성은 겉보기에 번듯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비판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날카로운 판단보다는 넓은 수용을 선택함으로써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튼튼한 사랑의 마디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미완성인 존재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거룩을 향해 빛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매일 넉넉히 공급받아 형제와 자매의 삶을 세워주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거룩한 책임』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406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는 때로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고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의 무게에 속절없이 짓눌려 쓰러지지 않도록 공동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성도가 서로의 짐을 지는 행위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이나 동정심을 넘어,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인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타인의 무거운 짐을 내 어깨로 기꺼이 옮겨 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겪고 있는 경제적 결핍이나 남모를 고독, 영적 방황의 어두운 터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기도의 무릎을 함께 꿇는 것만으로도 그 짐의 무게는 기적처럼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의 짐을 지체들에게 기꺼이 내어놓는 신앙적 겸손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서로의 결핍과 필요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실체가 되어 나타납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 짐을 대신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지체들의 짐을 나누어 지며 하나님 중심의 능동적인 삶을 일구어 나갑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의 동력』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01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비결은 화려한 건물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미하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각자의 살아온 배경과 생각이 다르고 처한 형편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과 비전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의 무릎 꿇고 마음을 합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변화의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나눔이 거룩한 예배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듯이, 우리의 소소한 식탁 교제와 일상의 대화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배어날 때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파편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만큼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하늘 소망의 대안적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나누기

각각 목상한 내용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온전한 하나 됨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더욱 넓게 확장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본문 나누기】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 신앙의 오솔길

생명을 짊어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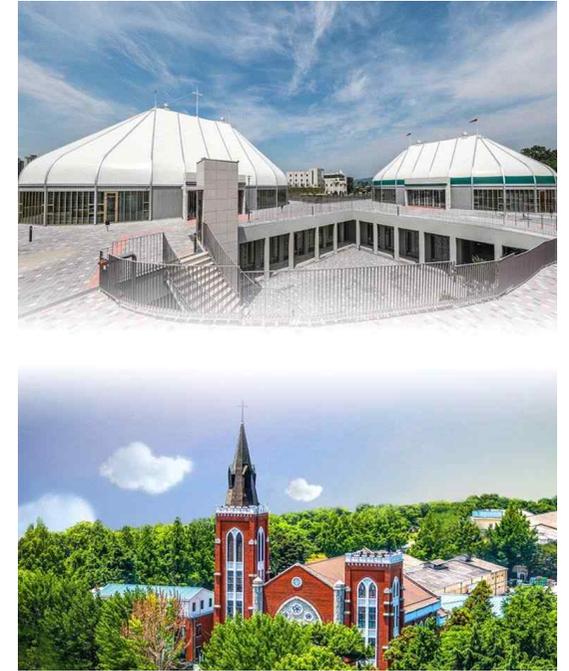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사실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그중 1막은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가산의 일부를 바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유산 분배는 오직 아버지 사후에만 이루어지는 관례였기에, 이는 곧 "나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랍니다"라는 패륜적인 선언과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재산 창고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진정한 충격은 아버지의 반응에 있습니다. 당시 엄격한 가부장 사회에서 이러한 모욕을 당한 아버지는 의당 아들을 징벌하고 내쫓아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분노하는 대신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줍니다. 여기서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비오스(Bios)'는 본래 '생명'을 뜻합니다. 즉, 아버지는 아들의 무모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가산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같이갈기 짊어 내어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절당하는 고통과 처참한 명예훼손의 수치를 묵묵히 견뎌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팀 켈러가 강조한 '타산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대개 우리는 사랑을 거절당하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며 마음을 거두어 들입니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세상의 합리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거부당하면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내던지고 생명을 짊어지면서까지, 집을 나가는 아들을 향한 일방적인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바로 이 '타산 없는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떠났던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자신의 생명을 짊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계산에서 벗어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찢긴 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이 무모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제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전부이자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능동적인 성도가 됩시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